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핑안손보, 신종 플루 전문 보험 최초 판매

□ 중국 메이저 금융그룹인 중국핑안그룹(中國平安集團) 산하 중국핑안손해보험(中國平安產險)은 최근 신종 플루 전문 보험상품인 ‘핑안 신종플루 종합보장보험(平安甲型H1N1流感綜合保險, 이하 신종 플루 종합보험)’을 5월 19일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함.

- 주보장과 추가보장으로 구성된 이 상품은 주보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되어 병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고, 추가보장에서는 해외 감염지역 방문 뒤 신종 플루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약정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구성되어 있음.
- 또한 병원이나 관계기관에서 신종 플루 감염사실을 확정받는 즉시 단계별로 2만 위안, 5만 위안, 8만 위안, 15만 위안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며, 통상 30일로 설정되어 있는 보험 효력 기간이 15일로 단축된 것이 특징임.
-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 감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상품을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신종 플루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최초의 보험상품으로 보고 있음.

□ 그러나 신종 플루 감염자들이 기존 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신종 플루 전용 보험 판매가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지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임.

- 이번에 중국핑안손해보험이 출시한 신종 플루 종합보험은 의외상해보험에 비해 지급 보험금이 크고 보험 효력 기간이 짧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의료보험과 보장범위가 거의 일치하는 등 특화된 상품으로는 다소 한계가 존재함.
- 따라서 이번 상품 출시가 중국핑안손해보험의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, 신종 플루 전문 상품의 필요성 및 지속적인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아직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.

(중국 CCTV 5/19, 세화재신 · 성도상보 5/20)